

# 교양과학출판의 몇가지 문제점

朴星來

한국외국어대 교수 · 과학사

과학출판이 활발해지고 있다. 4월이 '과학의 달'이라서만이 아니라, 과학에 대한 교양서적이 신문광고에 자주 등장할 정도가 된 것은 이미 한두해 전부터의 일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책 광고가 일간지에 나오는 일이야 옛날부터지만, 그 가운데 과학책이 포함된 일은 극히 최근의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최근의 통계를 보지 못했지만, 과학책이 제법 많이 출간되고 있다는 사실만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을 정도로 되었다.

그렇지만 우리의 과학출판에는 아직 상당한 본질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 많은 출판사 가운데 과학을 주로 하는 출판사는 별로 없다. 몇개 출판사가 과학중심으로 출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규모는 거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 오랜 동안 한국출판계를 담당해 온 전통있는 큰 출판사들은 아직도 여전히 과학출판에는 무관심하다.

이런 조건이고 보니 한국의 과학출판분야에는 아직 전문출판인이 없는 형편이다. 과학분야에 실력을 갖춘 훈련된 인력이 절대로 부족한 것이다. 기획과 편집을 담당하는 과학전문출판인도 거의 없고 보면, 그런 경영인이 없는 것은 더욱 당연한 일이다. 이런 환경 속에 활성화하고 있는 한국의 과학출판은 당연히 그에 걸맞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우리는 흔히 '과학출판'을 과학기술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의 출판을 통틀어 지적하는 수가 많다. 이런 책들의 범주 속에는 중학교의 '과학' 교과서에서부터, 대학생들이나 전산 전문가들이 읽어야 할 컴퓨터서적까지를 담을 수가 있다. 실제로 많은 출판인들은 이런 종류의 교재나 기술전문서 및 참고서를 전문으로 출판하면서 과학출판에 종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수도 많다. 넓은 범위에서 이런 출판도 과학출판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런 출판의 활성화란 그 방면의 산업발달이나 교육수준에 따라 좌우될 뿐이지, 우리 사회의 지적 분위기와 지적수준 전반에 달려 있는 일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출판문화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우리가 과학출판을 말할 때에는 이런 책들은 제외하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는 과학출판을 적어도 크게 교양서적과 전문서적으로 나누어 통계를 낼 필요가 있다.

최근 바로 이런 좁은 의미에서의 과학출판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과학에 대한 교양서적이 활발하게 서점에 전시되기 시작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최근의 교양과학출판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과학출판도 흥미위주로 추진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재미있는..." 투의 과학출판이 바로 그런 경향을 대변한다. 둘째로는 최근 우리의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핵을 포함한 공해문제, 건강문제들이 출판의 대상분야가 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셋째로는 현대의 과학기술 문명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과학서적이 출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과학 운동, 창조론 대 진화론의 대결 등을 다룬 책들이 여기 속한다.

이런 출판의 경향은 자칫하면 현대 과학기술에 대한 근본적 회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과학발달에 장애요인으로 등장할 수도 있을 것이 걱정이다. 위에 열거한 첫째 특징은 자본주의의 불가피한 열매이고, 둘째 특징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 민주화 경향의 반영이라면, 셋째 특징은 역시 우리가 겪고 있는 민족적 자존심의 회복운동과 이어진 경향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의 출판구조 속에서 이런 과학출판의 경향이 지속된다면, 혹시 한국사회에 무절제한 서양과학의 매도와 불합리한 신비주의가 날뛰게 되거나 앓을까 걱정도 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활성화하는 과학출판이 오히려 우리 사회에 지나친 반과학운동을 낳지나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1990년의 '과학의 달'이다.

표지인물 2 「백수와 장승」 낸 재야민속학자 金斗河翁

리포트 4 圖上계획이 '사실'로 구체화된다

출판도시 건설을 위한 심포지움 지상중계

6 "독서의욕 고양시킬 환경조성 필요"

대학생 독서실태 조사연구

초점 8 위기설 속 돌파구 찾는 사회과학출판

서평 10 장을병 「한국정치의 이해」— 박호성

이종윤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정병수

11 아다마르 「수학분야에서의 발명의 심리학」— 朴世熙

게이타 「빛으로 말하는 현대물리학」— 남기봉

12 사피로 「달이나 달같이」— 강빈구

비슬라르 「空間의 詩學」— 윤인선

13 윤지관 「민족현실과 문학비평」— 권성우

황현수 「지식인과 정치」— 손재준

저자인터뷰 14 「한국의 家族과 宗族」 낸 李光奎교수

과학시론 15 과학기술도서의 역할과 출판현실— 정해상

문학시론 16 미리 보는 90년대 한국시의 新抒情— 장석주

젊은 시인들의 합동시집 3권을 중심으로

이 책 그 사람 18 「알기 쉬운 옛책풀이」 낸 梁泰鑣씨

「한국의 종교복식」 낸 任藥子교수

19 「컴퓨터 바이러스」 낸 박명순교수

산악도서의 新명문 수문출판사 이수용사장

연재기획 20 세계의 추천도서 20— 이중한

세계문학전집의 반성과 南美文學

세계의 출판 22 독자적 전문화로 活路 찾는 美군소서점

컬러서거 24 과학저널리스트 玄源福씨의 書架

독자서평 26 김양선/황광미/김호/김미경

28 새로 나온 詩集

29 어린이책 들춰보기

30 신간안내

38 200자 안내/화제의 책/이색출판

40 신간목록

47 일간지 출판기사 색인

48 프리즘/독서퀴즈/정기구독 안내